

울산시민의 양성평등의식 및 관련 정책 수요조사¹⁾

박민정(울산여성가족개발원, 연구위원)

연구 배경 및 목적

- 양성평등은 이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한국사회에 더욱 절실해지고 있으며,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써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
- 이에 본 브리프에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및 관련 정책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울산시민의 양성평등정책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둬.

조사 내용

- 울산시민의 성 역할 및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
- 울산시민의 성차별 경험
- 울산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 및 전망
- 울산시민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 수요
-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의견



조사 대상 및 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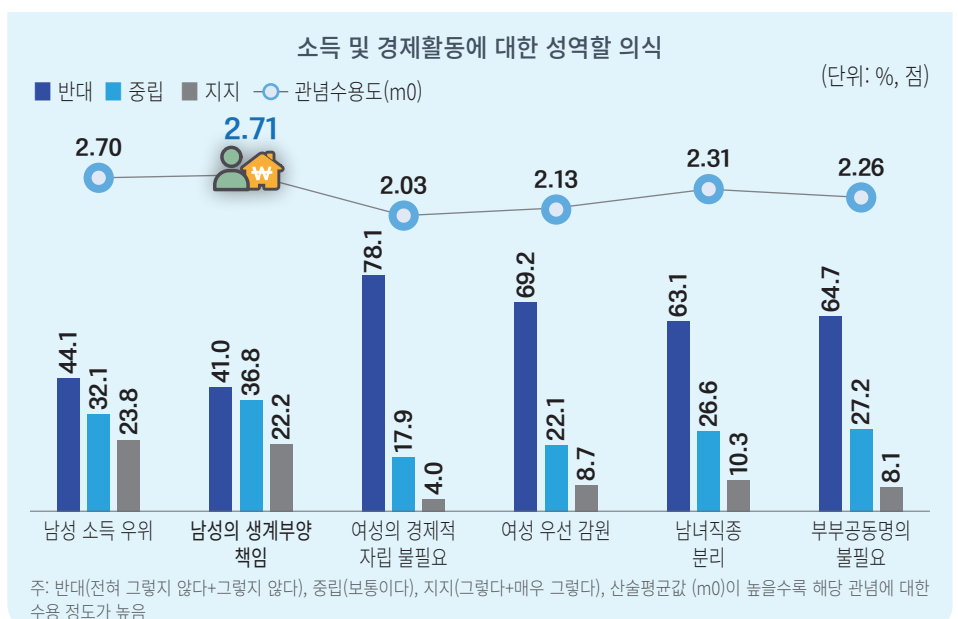
- 대상 :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1,000명
- 기간 : 2020. 1. 16 ~ 2. 05



01 울산시민의 성 역할 및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

1. 소득 및 경제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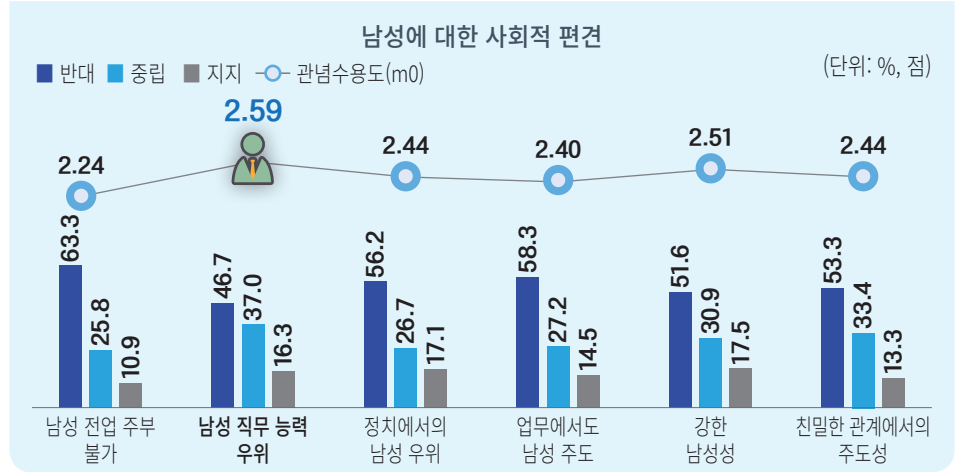
- ▶ 소득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관념에서 반대층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, 남성의 생계부양책임(m02.71점)과 남성 소득 우위(m02.70점)의 관념에 대한 수용 정도가 타 관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.
- ▶ 소득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 남성이 주도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며, 이러한 관념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관념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았음.



1) 본 BRIEF 19호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19년 기본연구과제인 「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(2018~2022) 시행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책 과제연구」의 일부를 발췌, 재구성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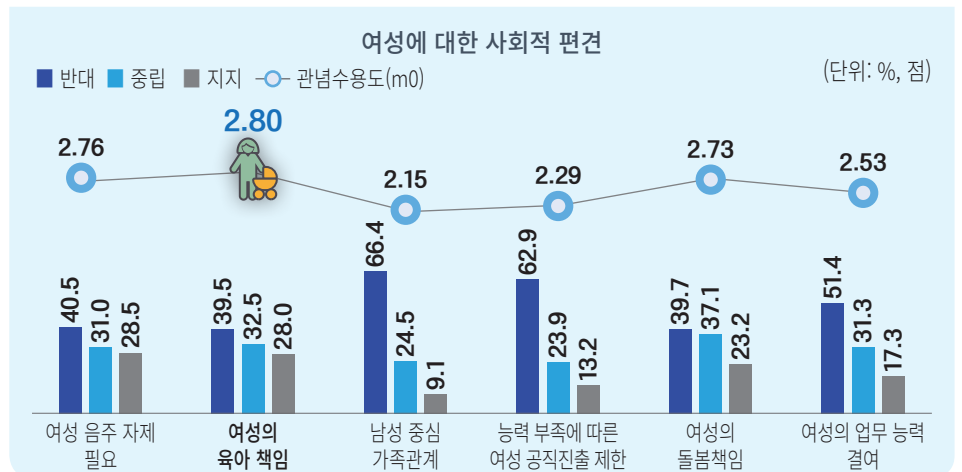
2. 남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

- ▶ 관련 모든 관념에서 반대층 비중이 가장 높았음.
- ▶ 남성 직무 능력 우위(m02.59점)와 강한 남성성(m02.51점)의 관념에 대한 수용 정도가 타 관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▶ 남성의 직무능력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으며,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강하다는 관념과 타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며, 남성이 여성보다 관념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았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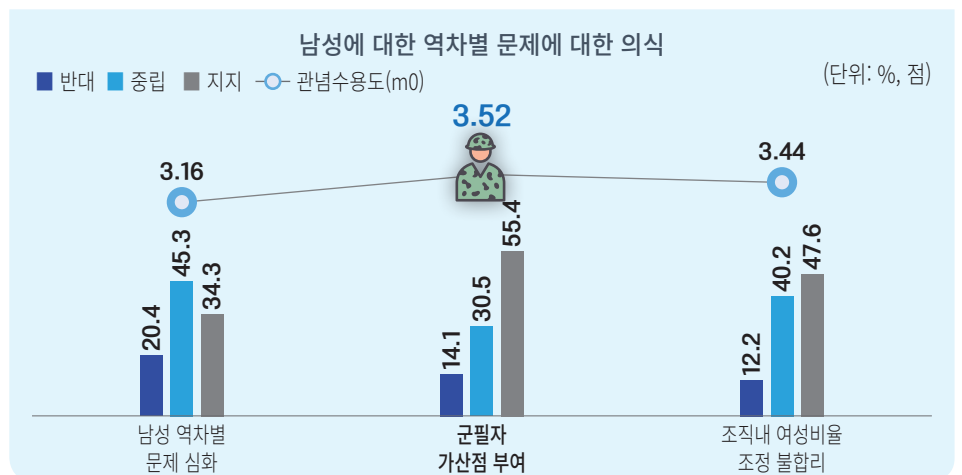
3.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

- ▶ 관련된 모든 관념에서 반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.
- ▶ 여성의 육아 책임(m02.80점)과 여성 음주 자제 필요(m02.76점), 여성의 돌봄 책임(m02.73점)의 관념에 대한 수용 정도가 타 관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▶ 경제활동: 남성의 역할
가족 돌봄: 여성의 역할
- ▶ 성 역할 편견: 남성 > 여성



4. 역할별

- ▶ '남성 역할별 문제 심화'의 관념에서는 중립층(45.3%)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, '군필자 가산점 부여'와 '조직 내 여성비율 조정 불합리의 관념'에서는 지지층(55.4%/47.6%)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.
- ▶ 남성의 역할별에 대한 남녀 의식의 차이가 있었음.
- ▶ 성평등은 남성의 이득과 상호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, 함께 일하고, 함께 돌보고, 함께 행복한 사회로의 나아가는 단계라는 의식의 전환이 중요함.



02 울산시민의 성차별 경험

1.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

- ▶ 가족 내 재산분배 차별(34.7%) > 학교생활에서의 차별(31.8%) > 가족 내 교육기회 차별(26.2%)
- ▶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성차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, 특히, 가족 내 재산분배 차별 경험에 대한 남녀 간 격차는 20.6%로 타 항목보다 현저히 컸음.



2. 구직과정 및 임금수준의 성차별

- ▶ 여성 임금(소득)에서의 차별(62.6%)과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(60.5%)이 남성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.
- ▶ 특히, 임금(소득)에서의 차별에 대한 남녀 간 격차는 28.3%로 타 항목보다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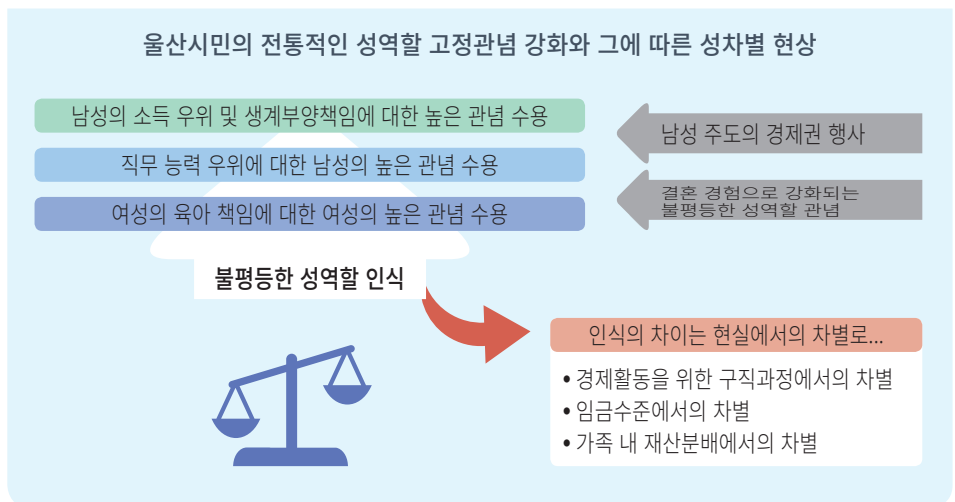
3. 성희롱 및 기타 차별

- ▶ 기타 사회생활에서 차별(57.4%),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성희롱(46.4%) 순으로 나타났다.
- ▶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성차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. 두 항목의 경험률에 대한 남녀 간 격차는 모두 22.3%로 동일한 수준임.



4. 결혼을 통해 강화되는 불평등한 성역할 고정관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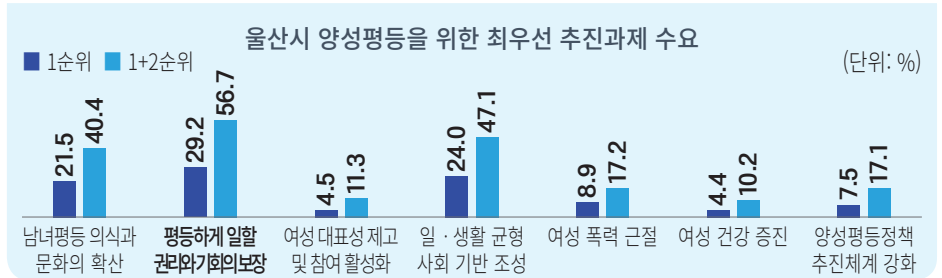
- ▶ 성역할 관념의 수용: 미혼자 보다 혼인을 경험한 사람(기혼자와 이혼, 사별 등)이 결혼을 통해 불평등한 성역할 관념의 수용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.
- > 향후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.
- > 성역할에 대한 양성평등한 의식 교육이 가정-학교-직장-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.
 - : 각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 성역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필요함.



03 울산시민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 수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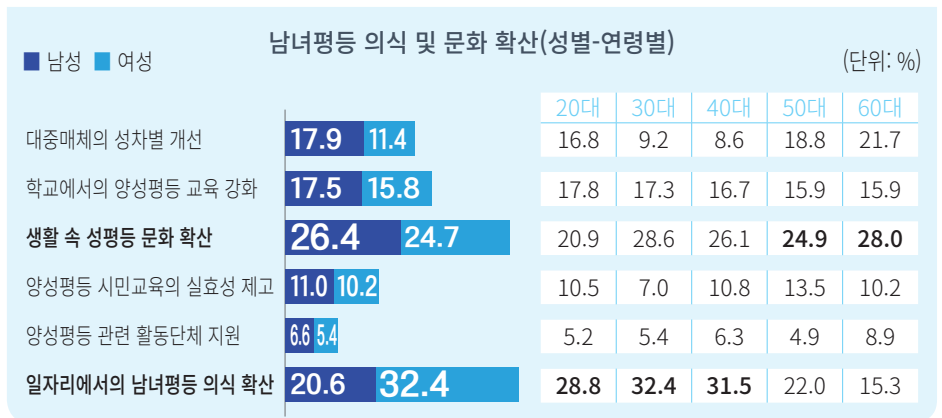
1. 울산시 양성평등을 위한 최우선 추진과제 수요

- ▶ 양성평등을 위한 최우선 추진과제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(29.2%), 일·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(24.0%),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(21.5%)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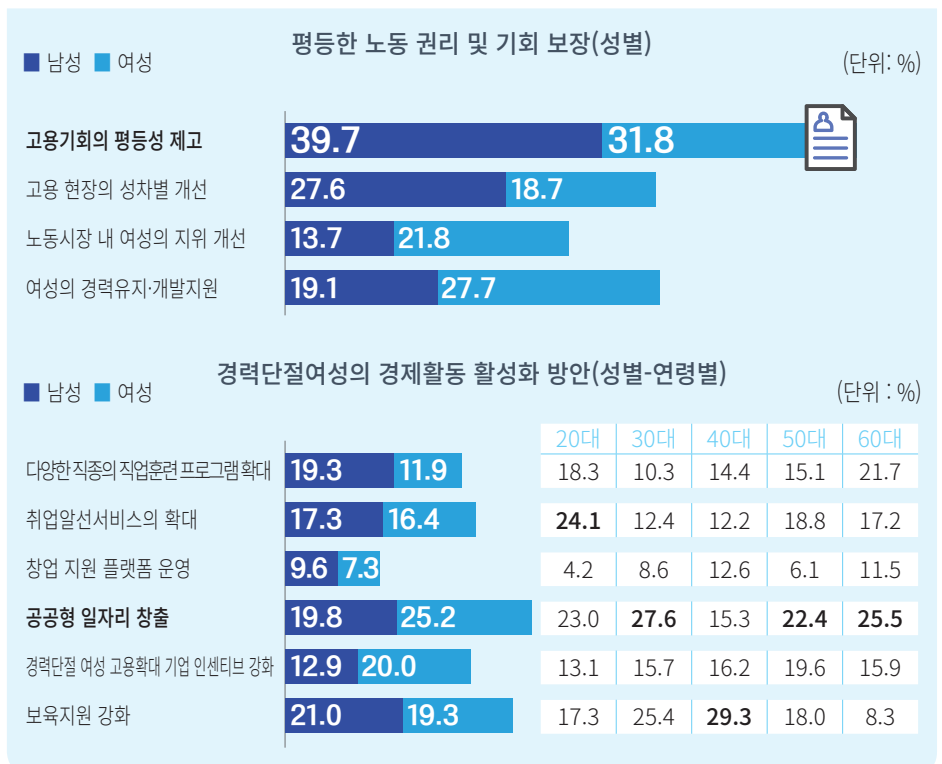
2. 남녀 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

- ▶ 성별: 남성 -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(26.4%), 여성 - 일자리에서의 남녀평등 의식 확산(32.4%)
- ▶ 연령별: 20~40대 - 일자리에서의 남녀평등 의식 확산, 50~60대 -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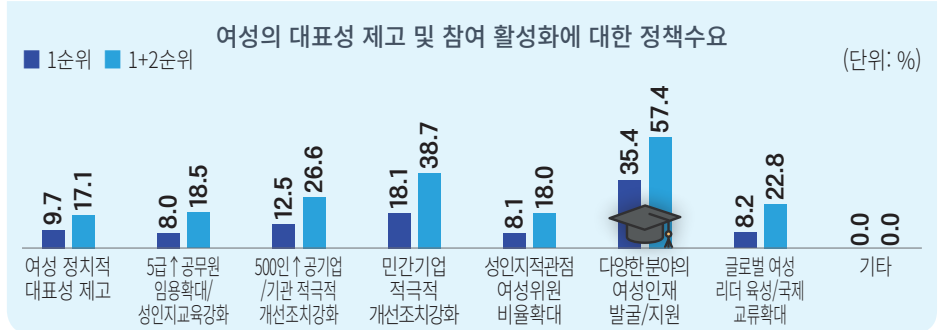
3. 평등하게 일할 권리 및 기회 보장

- ▶ 남성 :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>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> 여성의 경력유지·개발지원
- ▶ 여성 :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> 여성의 경력유지·개발지원 >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
- ▶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의 경우, 성별·연령별 차이가 나타났으며, 대상 맞춤형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을 기획할 경우, 아래의 성별·연령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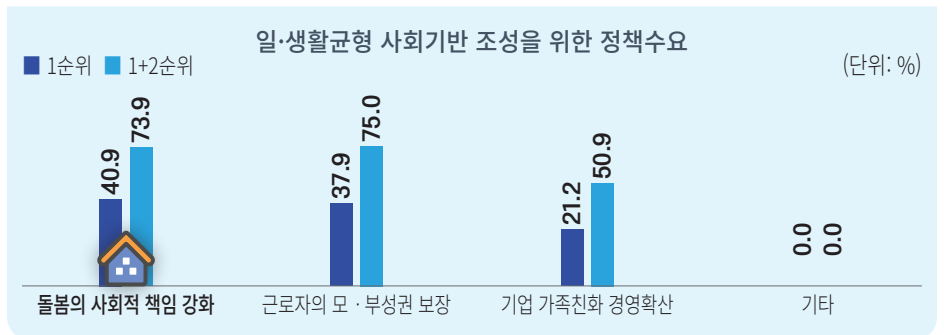
4.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

- ▶ (공공·민간·정치)여성 의사결정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
 -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 및 지원(35.4%) > 민간 기업에 대한 적극적 개선조치 강화(18.1%) > 500인 이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적극적 개선조치 강화(12.5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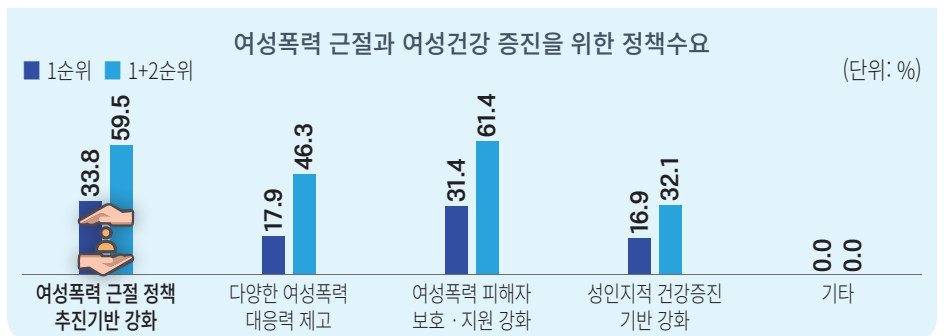
5. 일·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

- ▶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(40.9%) > 근로자의 모·부성권 보장(37.9%) >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(21.2%)
- ▶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확대 :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·휴가제도 실효성 강화(28.6%) > 정시 퇴근 문화 조성(23.2%) >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(21.6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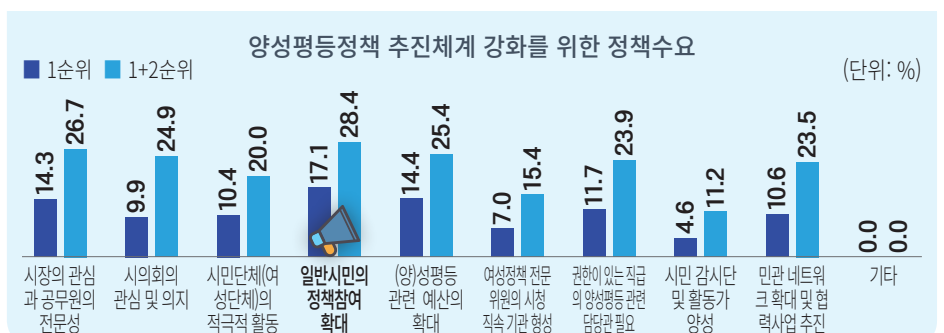
6.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

- ▶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
 -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(33.8%) >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 강화(31.4%) >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(17.9%)



7.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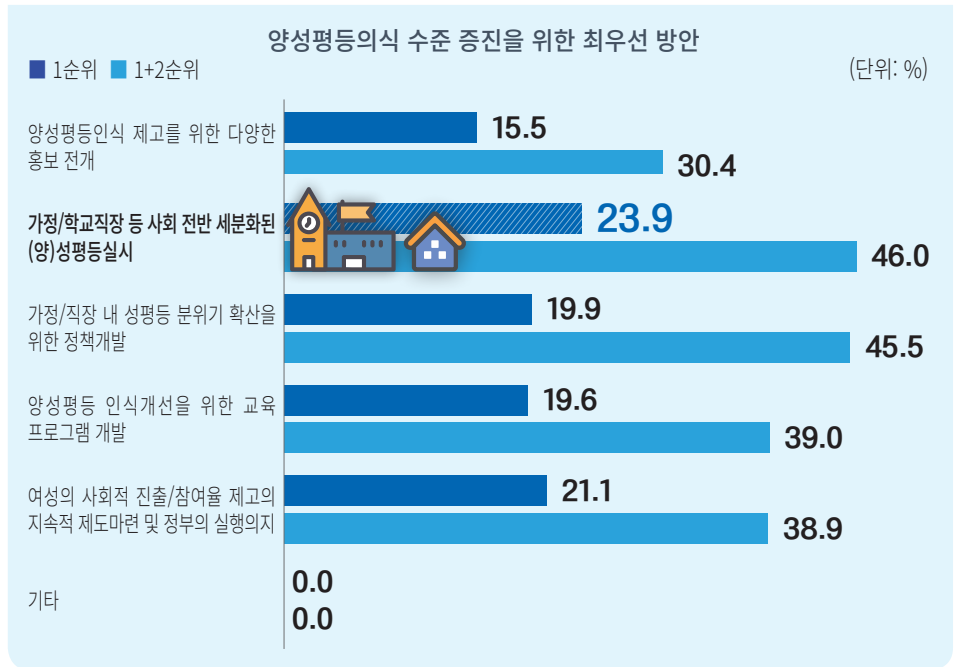
- ▶ 시민의 정책참여 확대(17.1%) > 성평등 관련 예산의 확대(14.4%) > 시장의 관심과 공무원의 전문성(14.3%)



04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의견

1. 울산광역시 양성평등수준 증진방안

▶ 가정, 학교, 직장 등 사회 전반에서 세분화된 성평등 실시(23.9%) >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참여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마련 및 정부의 실행 의지(21.1%) > 가정 내, 직장 내의 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(19.9%)



2.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울산시민들의 제안사항

▶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학교 및 직장, 가정 내 교육 지원(28.8%) >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중장기 지원 정책 수립(15.8%) > 남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 수립(10.0%)

